



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목장교회 나눔지

[3월, 마음에 새기는 말씀 -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얼음 깨기

'부활'을 생각하며

교회행사

2023년, 새롭게 시작하는 목장의 첫 모임입니다.

'시작'을 생각하며 다음의 질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같이 나누어 봅니다.

1_ '시작'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삶의 순간은 무엇인가요?

2_ 이번 목장 모임에서 기대하는 것은, _____입니다.

3_ 요즘 내 삶에 새롭게 시작한 것이 있다면?

2월

- 18일 더하이 고등부 수련회
- 25일 The Way 중등부 수련회
- 26일 양육훈련 신청 마감

3월

- 5일 상반기 양육훈련 시작
부부 사랑학교 시작
- 11일 어와나 입단식
- 26일 성례식

경배 찬양

"하늘 소망"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밟으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 둔 내 소망있네

선교지

[임상택 선교사]

감비아

1. 따보또 교회 부지 관련 서류와 건축이 은혜 중에 진행되도록
2. 아산을 비롯한 구도자들의 마음에 진리를 향한 갈망이 지속적으로 충만하도록
3. 감비아의 어수선�함이 하나님의 보호로 평화와 안정을 찾아가도록

소식

1. 상반기 양육 신청

양육 과정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는 만큼 누리는" 양육 과정에 마음을 열고 함께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2. 성례식

3월 26일 주일 성례식이 있습니다. 대상자께서는 함께 신청하여 주세요.

3. 모집

오렌지 사역 TF팀을 모집합니다. 오는 5월, 교회와 가정이 힘을 합하여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섬김의 마음으로 함께하실 분께 서는 꼭 자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김성연 목사 (010-2527-5063)

한문장 큰 울림

믿음은 실패를 통해
완숙하게 이루어집니다.

- 하용조 -
(서울 은누리교회 초대 목사)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마태복음 14장 2절)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주님의 메시아적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됩니다.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을 내다보게 합니다. 헤롯은 예수님께서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혹시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닐까하여 두려워합니다. 이는, 예수님 사역의 놀라운 역사를 들어서 알고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의 대표적 예입니다. 자신의 왕권을 내려놓지 않은 채, 단순한 지적 호기심이나 기적을 바라는 요행으로는 왕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나의 왕관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온전히 헌신할 수 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세례 요한을 떠올립니다. 요한은 헤롯의 잘못을 담대히 지적하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이복형의 조카이자 형제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하여 율법을 어겼지만 아무도 그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 일로 헤롯을 자주 책망하며 사명을 다합니다. 세례 요한은 “오리라 한 엘리야”(마11:14) 처럼 살면서 권력자들의 폭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죄를 지적한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의인을 죽이는 악을 행합니다. 잘못을 들춰내는 세례 요한의 지적을 참을 수 없었고 그를 죽이고 싶어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은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용서와 심판을 경험했지요 결국 그는 어리석은 맹세에 스스로 매여 악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세례 요한과 헤롯, 이들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할 소망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봅시다.**

1_요한은 죽기까지 소명을 감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세례 사역, 의로운 메시지를 전하다 체포되고 처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내다보게 하지요. 요한과 예수님의 투옥은 정치와 종교가 맞물린 세상 권세의 폭력의 결과입니다. 정치인의 무책임한 명령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머리는 잔치에 조롱거리 정도로 전시됩니다. 예수님의 몸 전체가 십자가 위에 조롱거리로 달렸듯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질문]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선포할 선지자적 소명이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은 어떠한가요?

2_세례 요한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상 권력을 가진 이들은 종종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강압적으로 짓밟습니다. 그러한 무력 앞에 하나님의 백성은 힘없는 고난과 죽음에 직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이러한 운명을 막지 않으시고 허락하십니다. 헤롯과 헤로디아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었으니 당장 승자처럼 보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승자는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패자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질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답게 살아가다가,
겪었던 어려움이나 답답함은 무엇이었나요?**

3_우리에게는 ‘하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에 과연 진정한 승자는 누구입니까? 헤롯이 아니라 요한입니다. 헤롯도 헤로디아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운명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에 비해 세례 요한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합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선행자로서 인정받고 예수님의 영광도 함께 누리게 됩니다. 살인자 헤롯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고 도리어 죽임을 당한 요한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며 당부하셨던 말씀을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할 대상은 “몸은 죽이지만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이 아니라 “영혼도 몸도 지옥에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10:28)

**[나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다시금 발견하고 고백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같이 나누어봅시다.**

나눔

주일 말씀 [하늘 소망 따라 살아야할 하나님 나라 / 마태복음 14: 1-12]을 통해 받은 은혜와 삶의 적용점을 나눕니다.
목장 식구들의 삶의 이야기를 서로 들으며,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나눔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소명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담대히 소명을 따라 살게 하여주세요.
기도	고난 중에도
오늘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감이 쉽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버티고 견뎌내도록 도와주세요.
하늘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늘 소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옵소서.